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출국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며 피팅하고 있다.

中 리나 '황색 돌풍'

아시아 선수 최초 테니스 메이저대회 결승 진출

호주오픈 클리스터스와 대결

중국의 희망 리나(세계랭킹 11위)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결승에 오르며 아시아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결승 무대를 밟았다.

리나는 27일 호주 멜버른파크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11일째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캐롤라인 웨즈 니아키(세계랭킹 1위·덴마크)에 2-1 역전승을 거머쥐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고 세계 랭킹 10위안에

든 최초의 중국 선수인 리나는 이날 승리로 중국은 물론 아시아계 여자 선수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오르는 또 다른 기록을 썼다.

"중국인 최초로 메이저 결승에 오르게 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힌 리나는 "컴백 퀸" 김 클리스터스(세계랭킹 3위·벨기에)와 오는 29일 우승컵을 다퉐된다.

리나와 클리스터스는 앞서 여섯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클리스터스가 4번을 이겨 상대전적에서 앞서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MVP

정다래 신인상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화려한 부활을 알린 수영 스타 박태환(22·단국대)이 제16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박태환은 27일 오전 중구 남대문로 멀리나잇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MVP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스포츠 발전 및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 시상식에서 박태환이 MVP를 차지한 것은 2007년(12회)과 2009년(14회)에 이

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태환은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회 연속 3관왕에 오르며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진을 벗어나고 건재를 과시했다.

역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한 사격의 이대명과 4관왕에 오른 불링의 황선옥이 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정다래(수영)와 김우진(양궁)이 신인상, 여민지 등 17세 이하 여자축구대표팀이 우수단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최철한, 농심배 이어 천원전도 우승

이태현 3단 3대0 꺾어

'독사' 최철한이 농심배 우승에 이어 천원전도 우승했다.

최철한 9단은 27일 마포구 서교동 Sky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5기 박사배 천원전 결승 5번기 제3국'에서 이태현 3단을 맞아 백으로 154수단에 불계승을 거뒀다.

1·2국에서 연승했던 최철한은 이로써 종합전적 3-0 완봉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004년에 제9기 결승에서 안달훈에게 3-0으로 이긴 후 두 번째 천원전 우승이다.

화끈한 공격력의 최철한은 이날 바둑에서는 유연한 변화로 상대를 요리했다. 상반 백여석집을 노리는 상대의 공격에 가벼운 사석 작전으로 응수한 최철한은 좌상귀에서도 부분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경쾌한 푸트워크로 이태현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중앙 두더움을 이용해 순식간에 하변에 큰 집을 만들어 승세를 확정지었다.

제9회~9회 대회를 2연패했던 최철한은 이로써 6년만에 천원에 재등극했다. 천원전 3회 우승은 4회의 이창호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연합뉴스

동계 아시안 전사들 결전의 땅 출국

조광래호 "호주대회 직행 티켓 땐다"

〈2015년 제16회 아시안게임〉

아시안 오늘밤 자정 3위 놓고 우즈벡과 일전

지성·영표 A매치 마지막 경기될까 '관심'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결전의 땅인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 김종우 선수단장이 이끄는 본단 69명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팬과 관계자의 격려 속에 결의를 다진 뒤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했다.

본진 가운데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티얼, 스키 점프 등 설상 종목 선수들은 대회가 열리는 알마티에 자리 잡는다. 소프트락과 남자 아시안하우스 선수 등 방상 선수들은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스타나로 이동한다.

30일 아스타나 실내축구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는 26개국에서 1100여명이 참가한다.

6개 종목(11개 세부 종목)에서 6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여드레 동안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동아시아가 아닌 곳에서 펼쳐져 의미가 남다르다. 국제대회를 개최할만한 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날씨도 겨울 스포츠를 소화하기에 적당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돌아가며 열렸다.

한국은 벤디를 제외한 5종목에 150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지난 2007년 중국 창춘 대회에서 금메달 9개를 따 종합 3위를 한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3개 이상을 획득해 3위를 지키는 게 목표다. /연합뉴스



구자철 '亞~득점왕' 어떡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로 떠온 미드필더 구자철(22·제주)이 컨디션 난조에 빠졌다. 29일(이하 한국시간) 0시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3-4위 결정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관계자는 27일 "구자철이 컨디션이 매우 좋지 못하고 코칭스태프에게 알려

왔다. 27일 훈련을 지켜본 뒤 출전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득점왕은 물론 대회 최우수선수(MVP)도 넓힐 정도로 거침이 없던 구자철의 기세는 이란과 8강전에서 무득점에 그지며 주춤했다. 또 일본과 준결승에서도 연장까지 120분을 뛰었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 승부차기 1번 키카로 나섰다가 실축을 하는 등

피로누적 컨디션 난조 우즈베키스탄 선발 불투명

컨디션이 내립세이미 드러났다.

27일 현재로서는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득점 순위를 보면 구자철과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스마일 압둘리티프(바레인)가 네 골을 넣어 공동 1위, 오카자키 신지와 미에다 데이치(이상 일본), 해리 큐얼(호주)이 3득점을 기록해 공동 3위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금 매매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 원대 출입 능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식당 창고 공장 용도 디아이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되어 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쌓은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송학동, 계획 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 원 천 5백만 원 월 740만 원(부기기자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 인근, 대출 3억 원, 매매가 12억 원 ■ 본 광고물은 전 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co.k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NH농협은행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차고지 임대구함

면적 2,000㎡(600평) 정도, 상업, 주거 3종.

상촌동 나대지.m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 진입로, 매매가 상당수익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일부 분할 가능.

산각동 과수원(전원주택 용지)

면적 3,423㎡(1,035평),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갑나무 수수원, 남향, 흙탕물, 경관지, 험지, 전원생활 적합, 매매가 3.3㎡당 15만 원, 첨단 보호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산월동 보호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 원, 자연녹지지역, 분할 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옹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 367㎡(111평), 3층, 연면적 598.8(181평) 매매가 5억, 보증금 6,000만 원 월 330만 원, 근린생활시설 입점.

서광주역 뒷 자연녹지.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 원, 현재 임야.

010-3616-8698, 062-233-2222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 정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주거지 2160평 공시지가 5억 매도 3억 8천
- 화정동 소보서 부근 4차선도로 342평 공시지가 매도 9억
- 신안동 상가지 310㎡(94) 공시지가 3억 7천 매도 2억 7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 코너 상당지 589평 건평은 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매도 23억 5천
- 북구청 부근 대지 1207 건평 420 평 공시지가 7억 매도 9억
- 대인동 대지 149 건평 438 평 공시지가 6억 3천 매도 8억 7천
- 회순동 상현리 주거지 587평 공시지가 3억 5000 매도 2억 6천
- 금남로 10번지 11동 대지 111 건평 300 평 공시지가 매도 4억 9천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허가부지 대지 10454평 건평 10층 2149평 김정 5746평 천원월 법인이전합 40억
- 송정리 금호아이파크 87평 공시지가 2억 5천 매도 2억 5천
- 북구 아파트동지 67평 목동형 골프연습장 대지 440 건평 507 평 공시지가 9억 7천 전세 2억 5백 월세 630만 원 13억
- 월산동 주택 대지 147 8개방 3개공 5140만 원 매도 4100만 원
- 광주역 앞 일원 대지 108 건평 3833 김정 12억 7천 매도 6억 7천

■ 매도 · 교환

- 남구 신정동 양성병장한로, 집증지 840평 남향 전원생활, 시출작업, 동호인주택한로 3억 5천만 원
- 두암동 4차선도로 1956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7억 2천
- 화정동 471㎡ 6차선 도로변 주거지 400평 매도 16억
- 신촌동 2층 주거지 738평 교회, 원룸, 생활주택 적합 13억 5천
- 회순동 노후주택 100평 주거지 100평 주거지 100평 1900만 원
- 회순동 대연 서성리 복정촌 250평 경관좋음 1억 7500
- 남평동 교원리 버스도로 211평 주택과공장있음 1억 6천 8백
- 전원주택지 흥정 남면 시령리 233평 경관좋음, 4천만 원
- 신수동 호남면 산지 2층 주거지 200평 사찰보금자립 2억 5천
<li